

선장 바꾼 무한도전, 방향타 못잡고 우왕좌왕

정체성 흔들리는 국민예능 '무도'

김태호PD 후임에 최형호PD 확정했지만 유재석·박명수조차 사전 인지 못해 섭섭 매주 5억 넘는 광고매출도 타격 불가피 일부선 연출자교체, 새로운 기회 시각도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은 김태호 PD가 물러나고 최형호 PD가 후임으로 확정되면서 '무한도전'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을지, 새로운 변화로 활기를 얻게 될지 갈림길에 섰다. 더욱이 2006년부터 연출을 맡았던 김태호 PD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일부 출연자의 동요가 감지되고 광고주들도 '무한도전'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MBC는 27일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연출을 그만둔다. 현재 하차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MBC는 3월 말 봄 개편에 맞춰 '무한도전'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출자 교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진전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재석, 박명수 등은 연출자가 바뀌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김 PD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프로그램 제작의 한 축을 맡아왔던 터라 연출자 교체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해 적잖은 놀라움과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출연자는 하차까지 고려해 예능본부 측이 나서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출연자 관계자는 27일 "후임 PD가 결정됐지만, '무한도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을 12년 맡아온 터라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김태호의 무한도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평소 프로그램 운용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온 '미아'들이 많아, 최 PD가 시청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프로그램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무한도전'은 방송 전후에 나오는 40개의 광고를 매주 '완판'시킨다. 주말 오후 7시에 노출되는 15초짜리 광고의 단가는 약 1300만원으로, '무한도전'은 광고 수익으로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연출을 그만둔다. 그러나 크리에이터로 제작에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과 인연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MBC

다면 광고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출자 교체가 '무한도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주 아이템은 변화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동일한 연출자와 고정 멤버들이 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다 보니 일부에선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작진과 출연진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도 상존했다.

'무한도전' 측은 일단 '김태호'라는 브랜드를 최대한 살리자는 계획이다. MBC 입장에서 지금의 '무한도전'을 만든 주역인 김 PD를 완전히 배제하고 시즌2나 다른 형태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김 PD도 평소 "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없지만 자부심이 크다"며 상당한 애착을 보인 바 있다.

MBC 측은 27일 "김태호 PD는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형태로 '무한도전' 제작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한도전'이 김태호 P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은 PD 교체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만 매주 5억2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김 PD의 하차로 인해 프로그램이 흔들린

숫자뉴스



개봉을 하루 앞둔 영화 '리틀 포레스트'와 '궁합'의 예매율 차이. 두 영화는 27일 오후 5시 기준(영화진흥위원회) 각각 20.6%, 20.5%의 예매율을 기록하면서 박빙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해시태그 컷



신동의 '새벽감성'

그룹 슈퍼주니어 신동의 짝꿍 변신이다. 신동은 짝꿍 아이리언에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핑크빛 립글로스나 하이라이터로 '미모'를 뽐낸다. 입을 살며시 벌린 포즈까지 취했다. 살짝 보이는 머리 장식도 눈길을 끈다. 신동은 "그냥 새벽 감성"에 젖어 "분장"을 했다며 "예쁜 신동"이라고 만족한다. 팬들은 "화장품이 이렇게 많나" "새벽감성이 참 무섭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슈퍼주니어 #신동 #결혼따라잡기

이 노래

이문세·광화문 연가

정동길·돌담길·조그만 교회당...故이영훈 작곡가 추억도 새록

서울 해화동과 동숭동 대학로에서 종로를 따라 광화문 사거리, 시청 앞, 정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고 이영훈 작곡가의 추억이 깊게 서린 곳이다. 대학로 작업실에서 건반을 치며 곡을 만들었던 이영훈 작곡가는 밤샘 작업 끝에 푸른 새벽이 오면 광화문 사거리, 경복궁까지 걸곤 했다. 평소 산책하며 사색하기를 좋아했던 고인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사랑도 했고, 이별도 했다. 그런 추억이 있는 까닭에 이영훈 작곡가가 가수 이문세를 통해 남긴 작품들에는 이 대학로·광화문·정동의 '루트'에서 만나는 풍경과 상념이 자주 등장한다.



이문세 5집(1988) 타이틀곡 '가로수'는 아래 서면'에 등장하는 '가로수'는 마로니에공원에 늘어진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이고, '라일락 꽃향기'는 해화동 주택가,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등 대학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지금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으로 향하는 대형 건물 화단에는 라일락이 서 있다. 이문세 6집(1989) 수록곡 '장군의 동상'은 광화문 사거리를 지키는 이순신 동상이다. 7집(1991) '옛사랑'에서도 그는 '흰눈 내리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길 찾아가자'라며 광화문의 눈 내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5집 수록곡 '안개꽃 추억으로'에 나오는 '그 꽃집'도 이영훈이 건넨 그 길 어딘가에 있는 꽃집이라.

5집 수록곡이자 이문세의 대표곡으로 꼽히는 '광화문 연가'는 '그 길'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연둥 털 정동길'과 '떡수궁 돌담길'이 노랫말에 나오고,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으로 정동제일교회와 등장한다. '향긋한 5월의 꽃향기'는 초여름 라일락이 뿜어대는 내용이다.

27일 오후 8시, 5월이면 라일락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장군의 동상이 언제나 서있고, 겨울엔 눈 덮인 교회당과 광화문네거리가 지척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영훈 10주기를 기념한 헌정공연 '작곡가 이영훈'이 열렸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전현무-한혜진 "올해초 연인관계 발전"

'나혼자 산다' 함께하며 사랑의 감정 함께 출연한 프로들, 역할 설정 고민

방송인 전현무(41)와 모델 한혜진(35)이 열애중이다. MBC '나혼자 산다'와 SBS '로맨스 패키지'에 함께 출연하며 쌓은 동료애가 사랑의 감정으로 이어졌다. '썸남썸녀'로 불렸던 만큼 두 사람의 교제에 촉각이 쏠리는 동시에 '사내연애'를 걱정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방송인 전현무(왼쪽)와 모델 한혜진이 MBC '나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하다 연인이 됐다. 사진은 설 연휴 방송된 SBS '로맨스 패키지' 공동 진행자로 나선 모습이다. 사진제공 | SBS

전현무와 한혜진은 27일 오전 자신들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자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양측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 것은 올해 초다. 현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된 계기는 '나혼자 산다'이다. 전현무는 2015년 8월, 한혜진은 2016년 7월부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약 1년6개월간 마주했다. 각별한 친분으로 지난해에는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전현무는 방송에서 "만약 한혜진과 잘 된다면 연애보다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무의 거리낌 없고 적극적인 행동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중의 하나여서 주변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1년 넘게 호흡을 맞추면서 더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 일상을 공개하는 것보다 스튜디오 녹화 비중이 많아지면서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다. 녹화는 매주 월요일에 진행돼 일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만나는 셈이다. 두 사람은 출연자들의 영상을 보며 티격태격하지만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 박나래와 이시연 등 다른 출연자들의 의심을 살 정도로 살갑게 지냈다.

하지만 연인관계로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기에는 부담도 적지 않다. '나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스타들의 일상을 담은 콘셉트. 출연자들의 일상생활보다 전현무-한혜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어, 제작진은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규 편성을 논의중인 '로맨스 패키지' 측도 진행을 맡은 두 사람의 열애 소식으로 고민에 빠졌다.

한 관계자는 27일 "스튜디오 녹화가 지금의 멤버로 고정되면서 녹화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졌다. 전현무와 한혜진도 이 분위기에서

한편 전현무는 27일 공개된 데이트 사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백슬미 기자

연예현장.jpg

순백의 미 뽐낸 앤 해서웨이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27일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영화홍보가 아닌 한 화장품 브랜드의 홍보행사 참석을 위한 것이다. 해서웨이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AHC 글로브 런칭' 행사에서 순백의 원피스에 하얀 구두를 신고 화사한 미소로 사진기자들의 셔터 세례를 받았다. 해서웨이는 3월1일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3월 극장가 '멜로망스' 봄바람

'지금 만나러...' '치즈인더트랩' '소공녀' 손예진·오연서·이승 3색사랑 연기대결

3월 극장가는 멜로와 로맨스의 훈풍이다. 한동안 한국영화에서 주춤했던 러브스토리가 대거 스크린에 등장한다. 판타지 멜로부터 리얼리티로 무장한 로맨스까지 멜로와 로맨스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멜로퀸'으로 통하는 손예진과 신예 이승 그리고 오연서의 맞대결 역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작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이 나란히 14일 개봉하는 데 이어 22일에는 이승의 '소공녀'(감독 전고은·제작 광화문시네마)가 공개된다.

저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관객의 취향을 공략하는 이들 영화는 흥행 결과도 주목받지만, 한국영화가 한동안 외면한 멜로·로맨스 장르라는 사실에서 반가움이 더 크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단연 기대가 집중되는 작품이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1년 뒤 기억을 잃은 채 돌아와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원작인 일본소설이 담은 판타지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관객이 현실적으로 공감하도록 각색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손예진이 나온 사실에서 관심을 거두기 어렵다. 손예진은 "기존 멜로영화에서 보여준 청순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닌 현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치즈인더트랩' '소공녀'(위부터).

적이고 무뚝뚝하면서도 재밌는 인물"이라고 역할을 소개하며 "클래식", "내 머리 속의 지우개"에 이어 이번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나

를 대표하는 세 번째 멜로영화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손예진에 비한다면 오연서와 이승은 로맨스 영화에 관련한 '새얼굴'이다. 특히 스크린 활동 경험이 적은 오연서에게 '치즈인더트랩'은 첫 로맨스 도전이다. 원작 웹툰이 가진 유명세는 그에게 이점이자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웹툰을 토대로 드라마로도 제작돼 방송된 작품인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오연서는 원작에 충실한 방법을 택했다. 웹툰 주인공의 행동은 물론 패션과 헤어스타일 등 외형까지 그대로 따랐다.

이승이 나온 '소공녀'는 현실적인 사랑에 가깝다. 다른 두 편의 영화가 '달달한' 양념을 치고 관객의 판타지를 자극한다면 '소공녀'는 3년차 가사도우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실부터 개성이 뚜렷하다. 이승은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만 있다면 더 원하는 게 없는 주인공. 상대역인 인재홍과 만나 20대 청춘이 겪을 법한 현실 로맨스를 그려낸다. 이혜리 기자 go11024@donga.com